

이질동형? 동질이형? 한국-미국-스웨덴의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 구조와 함의*

원숙연**

본 연구는 젠더레짐 유형론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지향적 레짐인 한국의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을 자유주의노동시장 레짐인 미국, 여성친화적 평등레짐인 스웨덴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미국,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제6차 세계가치조사자료(2010-2014)에 나타난 여성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다양한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여성노동에 대한 한국, 미국, 스웨덴의 전반적인 인식은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순서와 같다. 한국이 가장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적 인식구조를 보인 반면 스웨덴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한국과 스웨덴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둘째, 스웨덴은 집단에 따른 인식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배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전향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이 집단(남녀, 혼인, 연령, 자녀수, 노동지위)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하게 나타나 다양한 인식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평가된다. 넷째, 한국은 여성노동을 통한 가계부양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일자리의 여성배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인식의 모순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른 차원에 비해 덜 보수적이어서 서구 젠더레짐의 인식과 가깝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여성노동, 성고정관념, 젠더레짐, 한국-미국-스웨덴, 정책의 형식주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3246)

** 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소수자정책 및 젠더와 조직 등이다(sywon@ewha.ac.kr)

I. 서론

본 연구는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구조를 밝히는 탐색적 국제비교이다. 대부분의 사회현상이 그렇듯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소프트웨어)과 여성노동을 규율하는 제도(하드웨어)가 결합된 사회적구성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인식과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 행정학분야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논의의 대부분이 관련 제도(정책)에 집중해왔다(이진숙, 2010; 송다영, 2012; 김사현·홍경준, 2014; 차유경·원숙연, 2014; 최성은 양재진, 2014). 제도와 정책에 집중하는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해가능하다. 그러한 행정학적 관심과 논의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견인차역할을 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는 여성노동을 둘러싼 인식에 대한 관심도 제도(정책)에 대한 관심만큼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행정학이 관심을 갖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서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특정사회 구성원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Ingram, et al., 2007; 원숙연, 2013). 이처럼 여성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우리사회에 공유된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여성노동에 대한 정책(제도)이 인식을 견인하기도 하고, 인식의 변화가 정책(제도)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정책(제도)만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노동을 둘러싼 제도와 인식이 유리될 수 없지만, 현실에서 제도와 인식이 같은 정도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인식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형식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이종범, 1989), 인식의 지체가 발생하기도 한다(원숙연, 2005; 김영선 외, 2013). 따라서 여성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제도(정책)에만 집중할 경우, 현상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로 그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당연시되어왔던 유교적 전통 속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가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Sung & Pascall, 2014).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노동을 둘러싼 인식구조를 밝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에서 여성 노동과 관련한 인식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비교방법을 적용한다.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은 공간

(국가)에 따라 다르고, 같은 공간(국가)에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만 주목하여 그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원숙연, 2014), 공간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을 미국 그리고 스웨덴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한다.

국제비교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론적 부분에서 논의하겠지만, 본 연구는 지리적 공간으로서 지역과 여성노동이라는 주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여 젠더레짐 유형화에 기초하여(Lewis, 1992; 2001; Connell, 1987; Mosesdottir, 1995; Sainsbury, 1999; Lohkamp-Himmighofen & Dienel, 2000), 비교대상 국가를 선택하였다. 아시아에 속하면서 가족지향적 젠더레짐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북미의 자유시장레짐인 미국, 그리고 유럽에 속하면서 여성친화적 평등레짐으로 분류되는 스웨덴의 현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구한다. 한국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여성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인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세부구조를 갖는가? 한국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세부구조의 다양성은 미국이나 스웨덴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러한 인식의 구조가 갖는 특징, 의미 그리고 함의는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실증적인 답은 2015년에 제공된 제6차 세계가치조사(2010-2014)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

특정 집단 구성원의 속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경직적인 평가인 고정관념은 사회적 범주화의 산물이다. 인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범주로 집단화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범주의 중요한 기능(특징)은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상이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질성을 부각시킨다(Powell et al., 2002). 사회적 범주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성(性)과 인종이다. 성 또는 인종을 기준으로 사회적 범주화가 이루어지면 각 범주의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적 평가가 작동한다. 본 연

구에서는 여성노동과 관련한 논의로서 성에 기초한 고정관념인 성고정관념에 집중한다.

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성-고정관념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초한다(원숙연, 2014: 145에서 재인용). 첫째, 남성중심주의이다. 남성의 경험은 중립적인 기준 또는 규범으로 규정되고 여성의 경험은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성(성)의 우위를 전제한다. 둘째, 성-양극화이다. 이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이분법을 기초로 양자 간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셋째, 생물학적 원리주의이다. 성-고정관념이 전제하는 남성중심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는 생래적이고 생물학적 본질에 따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생물학적 원리주의는 남성성과 여성성간의 차이는 고정불변의 현실이 된다. 이상의 논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여성(남성)에 대한 평가는 남성(여성)과의 비교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다양한 사회현상에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가 그 중 하나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근간은 공-사영역의 이분법과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이다. 공-사영역의 이분법은 유급노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은 공적영역으로서 남성의 전유공간이고, 무급의 보살핌 노동이 이루어지는 가족은 사적영역으로 여성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사이분법은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로 연결된다(Lewis, 2002; Powell et al. 2002; 원숙연, 2014).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남성은 노동시장에 나가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로서, 여성은 가정에서 가족을 챙기는 보살핌의 책임자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남성이 사적영역인 가정에 머물거나, 여성이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 나가는 것 모두 성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뭔가 '부자연스러운'이 된다. 여기서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더 이상 가정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현실이 되면서 공-사영역의 이분법과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의 설명력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당연시 되었던 이러한 인식이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현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적 인식은 여성이 공적영역(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여성이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출한 경우에도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구분하는 성별유형화(sex typing)의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Acker, 1992; Alvesson & Billing, 2009). 예를 들어, 리더십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는 여전히 남성의 영역으로 규정하여 남성의 우위를 전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유리천장과 같은 수직적 편중화를 정당화한다(홍미영, 2004).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분리주의적 인식에 따른 수평적 편중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권력이나 지도력, 또는 교육/연수등과 같은 희소자원을 남성에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남녀분리 인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Ragins & Sundstrom, 1990). 여기에 더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에도 일차적 소득원(primary earner)은 남성이고 여성은 이차적 소득원(secondary)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이나 보살핌의 노동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듯 공(노동시장=남성)-사(가족=여성)이분법의 설명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을 둘러싼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형태를 달리하면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은 특정 국가 및 사회에 따라 그 양상과 정도를 달리하면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여성노동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인식간의 부합정도 역시 특정국가 및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가 여성노동을 둘러싼 고정관념적 인식의 국제비교의 필요성을 배가하는 이유이다.

2. 국제비교: 한국-미국-스웨덴 젠더레짐의 속성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비교대상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성 고정관념적 인식은 공간(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아시아, 북미, 유럽 등 공간적 차이를 반영하여 선택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지역만을 고려할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지역이라는 대범주를 기준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유럽처럼 많은 국가들로 구성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둘째, 단순히 지역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리연구가 아닐 경우 지역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원숙연, 2013).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역이라는 기준과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데 유용한 젠더레짐 논의를 기준으로 한다.

젠더레짐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권력 및 불평등 관계인 젠더관계를 규율하는 문화, 이데올로기, 가치관, 그리고 정책의 총합을 의미한다(Connell, 1987; Mosesdottir, 1995; Sainsbury, 1999; 원숙연, 2013: 8에서 재인용). 젠더관계에 대한 문화, 이데올로기, 가치관 그리고 정책내용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젠더레짐이 형성된다(Pfau-Effinger, 1998). 한마디로 젠더레짐은 젠더관계를 둘러싼 국가유형론(typology)이다.

가장 대표적인 젠더레짐 유형론은 남성부양자 모형(male-breadwinner model)이다(Lewis, 1992; 1997). 남성부양자 모형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급의 보살핌 노동이 갖는 의미와 유급노동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특히, 특정국가의 정책 논리 및 방향성에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가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를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강한 남성부양자 모형(strong male-breadwinner model)이다. 이 모형의 국가에서는 남성은 임금노동, 여성은 무급노동의 이분법에 대한 사회적 수용정도가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유급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한 특징을 갖는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 모형은 약한 남성부양자 모형(weak male-breadwinner model)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임금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일-가족 양립정책 및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유형으로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강한 남성부양자 모형과 약한 남성부양자모형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남성부양자 모형(moderate male-breadwinner model)이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 역할의 이분법을 일정부분 수용한다. 따라서 남성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한편, 비교적 단순한 남성부양자모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젠더레짐을 제시한 것이 Lohkamp-Himmighofen & Dienel(2000)의 유형론이다. 이는 젠더관계 형성에 중요한 일-가족 양립 지원의 적극성에 초점을 맞추어 젠더레짐을 유형화하였다. 첫째, 자유주의 노동시장모형으로 일-가족 양립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영역이기 보다는 개인적 또는 시장(기업)에서의 해결대상으로 본다. 이는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기초로 정부는 개인(또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최소한의 개입을 한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휴가정책이나 보

육의 사회화 정도가 매우 낮고, 미국, 영국, 캐나다가 이에 속한다. 둘째, 여성친화적 평등 모형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가 이에 속한다. 남녀모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정함으로써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가 노동을 인간이 가진 권리이자 사회구성원의 의무로 규정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전통과 관련된다(O'Connor et al., 1999; Esping-Andersen, 2009; 이진숙, 2010). 이에 따라 평등한 젠더관계를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평등, 보육의 사회화 및 부모역할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가족지향적 모형으로 서구에서는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이 젠더레짐에서는 가족주의적 전통과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수용한다. 자연스럽게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이며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유지된다. 보살핌의 사회화는 미미하며 보살핌을 가족 및 확대가족 중심의 사적해결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 젠더레짐으로 유형화될까? 서구에서 진행된 젠더-레짐 유형화에서 한국을 직접적인 분류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강한남성부양자 모형과 가족지향적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유교적 전통 하에서 가족주의 및 남녀 역할의 이분법이 일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남성부양자 모형의 설명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여성은 임금노동자로서보다는 보살핌의 일차적 제공자라는 정체성이 강하고 정책의 기조도 여성과 남성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련 논의에 따르면(Won & Pascall, 2003; Sung, 2014; Sung & Pascall, 2014),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는 가족주의적 전통 속에서 가족 및 확대가족을 복지 및 보살핌의 일차적인 제공자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살핌의 탈가족화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활발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여전히 보살핌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한국은 가족지향적 젠더레짐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젠더레짐의 유형론과 그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유형론에 입각하여, 각각의 젠더레짐에서 국가를 하나씩 선택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구조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표 1〉 국가별 젠더레짐의 특징

젠더레짐 유형	특징	국가
가족지향적 레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적 성별이분법과 가족주의 전통 - 강한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 - 노동자로서 여성(women as workers) 정체성 인정정도가 낮음 - 가족(여성) 및 확대가족이 보살핌의 일차적 제공자 - 보살핌의 사회화정도가 낮음 	한국 이탈리아
자유주의 노동시장레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적 전통 -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대한 강한 믿음 - 중간적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 - 여성의 노동자(women as workers)로서의 정체성을 인정 - 보살핌의 사회화 정도는 낮음 - 보살핌의 제공은 시장 또는 노동계약(고용주와 고용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 	미국 영국 캐나다
여성친화적 평등레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민주주의적 전통 - 약한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 - 남녀모두에게 노동을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노동자로서 여성(women as workers)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정함 - 보살핌의 사회화(탈가족화)정도가 높음 - 남성(아버지)과 여성(어머니)모두가 부모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살핌 관련 정책에 젠더평등이 중시됨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III. 실증연구

1. 조사자료 및 분석단위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젠더-레짐 분류에 기초하여 가족지향적 젠더레짐인 한국을 비롯하여 자유주의 시장레짐인 미국, 여성친화적 평등레짐인 스웨덴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구조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비교연구가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척도의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 미국, 스웨덴이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지만 언어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동일척도로 조사된 자료 확보에 따르는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세계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가 국제비교 연구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가치 조사는

198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이루어진 광범위한 조사자료이다. 100여개 국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가치와 신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제공한다(원숙연, 2013). 세계가치조사는 민주주의, 세계화, 환경, 다양성 그리고 안보와 같은 거시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종교, 젠더평등, 가족,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관적인 안녕에 이르기까지 심리 및 태도를 망라한다.¹⁾ 이에 세계가치조사는 본 연구가 시도하는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국제비교에 타당한 조사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의 조사인 제 6차 조사자료(2010-2014)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스웨덴이라는 국가(사회)별 차이와 개인이 갖는 성-고정관념적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거시적 단위와 미시적 단위가 불가피하게 혼재된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미시적 단위인 개인과 거시적 단위인 구조(또는 사회)간 관계설정은 오래된 논쟁으로(Parker, 200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미시적 단위와 거시적 단위의 혼재에 따른 기본적인 입장정리는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방법론적 집합주의(methodological collectivism/holism)를 적용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과학지식을 개인을 단위로 하여 획득하는데 방점을 두는데 반해, 방법론적 집합주의는 사회과학 지식 생산의 단위가 집단이나 사회 등 거시적 단위에 방점을 둔다(Parker, 2006; Bunnin & Yu, 2004).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사회 현상은 개인으로 환원된다고 보는데 반해, 방법론적 집합주의는 사회전체의 특성이 개인 의식형성(sense making)의 기반으로 본다. 따라서 방법론적 집합주의에서 개인의 의식적·무의식적 태도나 인식은 특정사회(구조) 전체의 특성이나 과정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발현체이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이 갖는 인식이나 태도는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공유되며 함께 변화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는 상호유리될 수 없다(Giddens, 1979; 김용학, 2003).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집합주의에 기반하여 한국(가족지향적레짐), 미국(자유주의노동시장레짐), 스웨덴(여성친화적 평등레짐)의 거시적 레짐 별 특성이 각 레짐의 구성원 개인이 갖는 인식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성

1)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World_Values_Survey

-고정관념은 특정 국가(사회)의 문화적 압력이나 특성에 따른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Johnston and Swanson, 2006), 국가(레짐)별 차이와 개인별 차이를 상호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배가한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을 둘러싼 인식의 전반적인 구조와 각 국가(레짐)별 구성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연계하여 그 인식의 차이를 밝힌다.

2. 표본의 특성 및 측정도구의 구성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각 국가별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본 규모가 비교적 크다. 한국이 1200명, 스웨덴이 1206명으로 비슷한 규모이고 미국이 2236명으로 한국과 스웨덴의 두 배에 가깝다. 한국과 미국에서 남성이 다소 많으나 거의 50 대 50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나 성별균형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의 경우, 기혼이 60%에 가깝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많은 것이 세 국가가 공통적이다. 자녀수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무자녀이거나 두 명의 자녀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근접하고, 한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미국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다소 높은 특징을

<표 2> 표본의 구성

국가	성별 (%)		혼인 (%)		연령 (%)				
	남성	여성	기혼	미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한국	592 (49.3)	608 (50.7)	762 (63.9)	440 (36.1)	250 (20.9)	261 (21.8)	274 (22.8)	194 (16.2)	221 (18.4)
미국	1084 (51.4)	1148 (48.6)	1481 (66.4)	751 (33.6)	393 (17.6)	314 (14.1)	378 (16.9)	478 (21.4)	669 (30)
스웨덴	569 (47.2)	637 (52.8)	699 (59.4)	478 (40.6)	305 (25.3)	152 (17.8)	188 (15.6)	174 (14.4)	387 (32.1)
	자녀수 (%)				노동지위 (%)				전체 표본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자기 고용	실업	
한국	373 (31.7)	164 (13.9)	407 (34.6)	234 (19.9)	376 (49.4)	89 (11.7)	244 (32.1)	52 (6.8)	1,200
미국	660 (29.8)	328 (14.8)	628 (28.4)	599 (27)	930 (66.2)	201 (14.3)	107 (7.6)	167 (11.9)	2,236
스웨덴	437 (36.3)	184 (15.3)	366 (30.4)	218 (18.1)	512 (67.9)	180 (23.9)	28 (3.7)	34 (4.5)	1,206

갖는다. 연령은 우리나라에서 60대 이상의 비율이 미국이나 스웨덴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고용지위의 경우, 한국이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기고용(자영업)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웨덴의 자기고용과 한국과 스웨덴에서 실업자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점은 이와 관련한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2010-2014 제 6차 세계가치 조사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술한바와 같이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평가는 ‘남성’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세계가치조사도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을 정치 및 기업에서의 리더십과 연결하였다. 남성적 영역으로 규정되어온 정치지도자와 기업의 CEO 역할수행에 있어서 여성의 열위를 남성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노동의 영역에 진입하는데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인적자원의 구성요소이면서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되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성별이분법적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문항으로, 일자리 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성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남녀 간 수입갈등은 여성의 높은 수입이 일차적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의 역할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도구

차원	문항
정치지도자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지도자로서 더 적합하다 (On the whole,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
기업 CEO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의 CEO에 더 적합하다 (On the whole, men make better business executives than women do)
대학교육 중요성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A university education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일자리 남성우선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남성에게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When jobs are scarce,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than women)
수입갈등	만일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을 경우, 불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If a woman earns more money than her husband, it's almost certain to cause problems)

IV. 실증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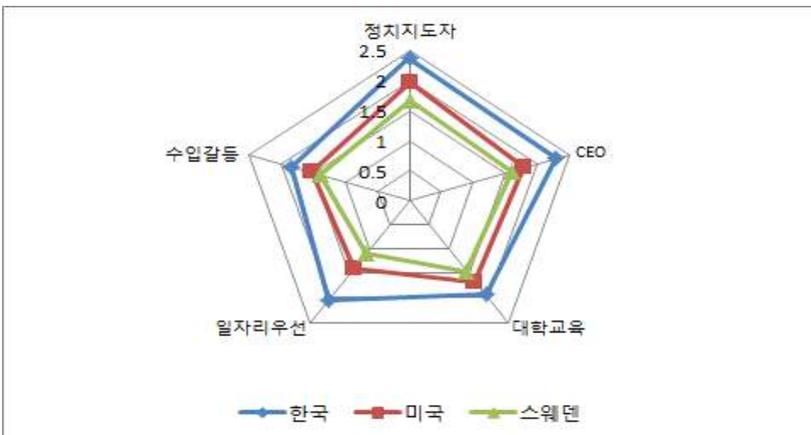
1.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 I: 전반적 인식구조

한국, 미국, 스웨덴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각 차원별 고정관념적 인식의 전반적인 구조는 <표 4>와 <그림 1>과 같다. 한국이 모든 차원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적 인식을 보였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모든 차원에서 강력한 반- 고정관념적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은 한국과 스웨덴의 중간에 위치한다.

<표 4> 여성노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차원	문항	한국	미국	스웨덴
정치지도자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지도자로서 더 적합하다	2.38	1.96	1.67
기업 CEO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의 CEO에 더 적합하다	2.29	1.80	1.59
대학교육의 중요성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1.93	1.67	1.44
일자리 남성우선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남성에게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2.05	1.36	1.09
수입갈등	만일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을 경우, 불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1.83	1.53	1.38

<그림 1> 여성노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국가가 속한 젠더-레짐의 분류기준 중 하나인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남성부양자 모형이 실제 각 레짐별 일반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유형화가 아니라 각 국가의 정책방향과 성격을 기초로 한 것이다(Lewis, 1992; 2001; Sainsbury,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고정관념적 인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결과는 국가정책이 진공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하는 사회적 구성체임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좀 더 구체적인 인식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첫째, 각 차원별 인식정도를 보면, 한국은 정치지도자, 기업CEO, 일자리 남성우선, 대학교육중요성, 수입갈등 순으로 보수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에 반해 미국과 스웨덴은 정치지도자, 기업CEO, 대학교육중요성, 수입갈등, 일자리 남성우선 순으로 보수적인 인식을 보임으로써 두 레짐의 인식구조(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에 유사성이 확인된다. 특히 한국에서 비교적 높은 고정관념적 인식을 보인 <일자리남성우선>이 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이 일자리남성우선 차원에서 미국 및 스웨덴과 가장 큰 인식격차를 보인다.

과거에 비해 한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노동시장=남성)-사(가족=여성)이분법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2010년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존재하던 때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가 여성고용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활성화하는 요소라는 논의를 감안하면(차유경·원숙연, 2014), 경제위기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성별이분법이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결과는 한국은 수입갈등은 다른 차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관념적 인식을 보인다. 물론 미국이나 스웨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다른 차원과 비교하면 낮다.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으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입갈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는 것은 아내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아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남편의 인식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관련자료에 따르면(통계청, 1998; 2009; 성인지통계, 2014; 원숙연, 2014에서 재인용), 1980년대 후반에 아내의 일(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남편의 인식 증 결혼 전과 자녀양육 후가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로 가정에 전념해야 한

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는 ‘시기와 무관하다’는 응답이 상승곡선을 그렸고, 2010년에 들어와서는 시기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수입이 남편보다 많을 경우 갈등이 생기리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함께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의 고정관념적 인식은 다른 차원에 비해 낮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교육의 중요성 차원에서 한국, 미국, 스웨덴 세 나라의 인식이 상호 수렴한다. 이는 2013년 현재 한국에서 남학생: 67.6%; 여학생:74.6% 한국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74.6%)이 남학생의 진학률(67.6%)을 앞지른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통계청, 2014). 같은 맥락에서 교육이나 문명률 등을 기준으로 한 인적자본량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현격하지 않다는 국제적인 통계도 이를 확인한다. 문제는 노동시장 참여의 기본 조건인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인 대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차이를 크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남성우선의 인식이 비교적 높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인식의 간극을 보여준다.(이러한 인식 간극이 갖는 함의는 자세히 후술한다).

2.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 II: 국가별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1) 개관

여성노동에 대한 한국, 미국, 스웨덴의 전반적 인식을 넘어선 보다 구체적인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국가별로 성별, 혼인, 연령, 자녀수, 노동지위 등 다양한 배경변수를 기준으로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 분석결과에 따른 집단차이의 세부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Turkey를 적용한 사후분석(post-hoc)을 추가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상의 차이분석 결과가 갖는 전반적인 특성을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과 스웨덴에 비해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 구조가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한국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을 구성하는 모든 차원에서 성별, 혼인, 연령, 자녀수, 노동지위에 따른 집단간 인식차이가 모

(표 5)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집단차이 : 국가별 비교

차원	정치지도자			기업CEO			대학교육요청			일자리 남성응원			수입갈등		
	한국	미국	스웨덴	한국	미국	스웨덴	한국	미국	스웨덴	한국	미국	스웨덴	한국	미국	스웨덴
국가	2.47	2.10	1.70	2.38	1.96	1.66	2.00	1.79	1.50	2.16	1.45	1.09	1.89	1.49	1.25
성별	2.29	1.83	1.61	2.20	1.64	1.48	1.86	1.56	1.38	1.93	1.27	1.05	1.76	1.55	1.47
남성	3.763***	8.763***	2.082*	3.623***	11.252***	4.586***	2.916**	8.714***	3.402**	5.286***	7.175***	1.919	3.226**	-2.146*	-5.503***
여성															
t 값															
총인	2.43	1.97	1.64	2.35	1.81	1.56	1.98	1.69	1.43	2.16	1.35	1.06	1.85	1.48	1.32
기혼	2.21	1.97	1.61	2.06	1.79	1.53	1.73	1.60	1.42	1.73	1.35	1.06	1.69	1.56	1.34
미혼	-4.14***	-0.29	0.533	-5.50***	-4.08	-0.636	-4.61***	-2.171	-1.130	-9.06***	.077	.099	-3.53***	1.927	.388
F 값															
연령															
20대	2.20a)	1.99	1.50a)	2.10a)	1.76	1.58a)	1.74a)	1.55a)	1.43a)	1.70a)	1.35a)	1.34a)	1.67a)	1.53	1.95a)
30대	2.25a)	1.95	1.50a)	2.08a)	1.75	1.51a)	1.78a)	1.61a)	1.37a)	1.88a)	1.32a)	1.31a)	1.63a)	1.52	1.99a)
40대	2.34a)	1.97	1.58a)	2.44a)	1.79	1.45a)	1.90a)	1.64a)	1.37a)	2.11b)	1.30a)	1.24a)	1.85b)	1.46	2.13a)
50대	2.41b)	1.94	1.76b)	2.33b)	1.80	1.51a)	1.98a)	1.66a)	1.39a)	2.20b)	1.33a)	1.36a)	1.88b)	1.52	2.10a)
60세 이상	2.76c)	1.95	1.74b)	2.77c)	1.84	1.66b)	2.32b)	1.78b)	1.52b)	2.37c)	1.42b)	1.50b)	2.15c)	1.56	2.29b)
F 값	14.389***	.780	5.114***	21.860***	1.043	3.005*	16.092***	6.635***	2.924*	24.798***	2.609*	4.796***	17.673***	1.144	6.619***
지녀수															
0	2.21a)	1.95	1.70	2.07a)	1.77	1.56	1.73a)	1.60a)	1.41	1.74a)	1.33a)	1.10	1.67a)	1.47a)	1.31a)
1명	2.29a)	1.94	1.59	2.30b)	1.77	1.54	1.89b)	1.63a)	1.49	1.99b)	1.33a)	1.03	1.70a)	1.51a)	1.32a)
2명	2.43b)	1.95	1.64	2.32b)	1.81	1.62	1.96b)	1.67a)	1.43	2.20b)	1.32a)	1.07	1.89b)	1.52a)	1.36a)
3명 이상	2.64c)	2.01	1.63	2.60c)	1.84	1.50	2.23c)	1.77b)	1.45	2.31c)	1.43b)	1.06	2.06c)	1.58b)	1.45b)
F 값	14.156***	.994	.890	18.987***	1.178	1.360	17.768***	8.286***	.833	38.886***	4.694**	2.000	18.327***	2.648*	2.753*
노동자취															
정규직	2.30a)	1.97	1.58	2.23a)	1.78	1.52	1.79a)	1.62	1.40b)	1.93a)	1.29a)	1.05	1.70a)	1.45a)	1.26a)
비정규직	2.48b)	1.94	1.68	2.35b)	1.76	1.56	2.09b)	1.64	1.42b)	2.20c)	1.38a)	1.06	1.96b)	1.58b)	1.42b)
자기고용	2.33a)	1.97	1.41	2.21a)	1.84	1.33	2.01a)	1.64	1.22a)	2.13b)	1.31a)	1.00	1.87a)	1.45a)	1.33a)
실업	2.71c)	1.98	1.86	2.65c)	1.78	1.62	2.37c)	1.68	1.76c)	2.27c)	1.43b)	1.19	2.20c)	1.70b)	1.48b)
F 값	4.456**	.102	2.480	4.426**	.260	1.155	10.881***	.390	3.989**	6.875***	3.495*	2.230	10.852***	7.513***	3.298*

*p<.05, **p<.01, ***p<.001, Post-hoc(Turkey). a)b)c)

두 통계적으로 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은 구성원이 갖는 배경변수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차원에 작용하는 배경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혼인, 연령, 자녀수, 노동지위가 일부차원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처럼 모든 차원에서 인식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스웨덴도 미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만 혼인은 모든 차원에서 작용하지 않고, 자녀수, 노동지위에 따른 집단차이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나 스웨덴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집단 간 편차가 적고 인식공유가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이 '낮은 쪽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이 '높은 쪽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배경집단에 따른 인식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는 후술할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은 배경변수에 따른 집단 간 인식이 존재하는 동시에 그 내부 집단이 모두 세 집단(a, b, c)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과 스웨덴은 통계적으로 지지된 집단차이도 적지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두 집단(a, b)으로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국가별 전반적인 차이를 변수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2) 성별에 따른 집단차이

성별은 세 국가 모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정치지도자 및 기업CEO로서 남성우위,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반이 되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의 차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한국, 미국, 스웨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결국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남녀격차가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높은 것은 기존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됨으로써 본 연구결과는 이해가능하다.

그런데 성별차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일자리 남성우선에 대한 스웨덴의 인식이다. 스웨덴에서 일자리 남성우선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도 매우 낮았지만, 그에 대한 성별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과 대

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통 속에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별차이를 넘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동이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되는 스웨덴의 사회적 전통 속에서(O'Connor; Esping-Andersen, 2009; 이진숙, 2010; 최성은·양재진, 2014), 일자리의 우선순위가 남성 또는 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을 여성과 남성이 인식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스웨덴의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약 4%)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인식의 공유와 무관하지 않다(한국: 21.4%/미국:10.1%)(OECD, 2012).

성별차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결과는 미국과 스웨덴에서 수입갈등 차원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 불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여성이 더 높게 인식한다는 뜻이다. 물론 <수입갈등>에 대한 인식 자체는 한국에 비해 훨씬 낮지만, 한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수입갈등을 더 높게 인식하는데 반해 미국과 스웨덴은 여성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세계가치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2010년이다. 이 당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와중이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수입갈등에 대한 남녀인식차이를 만드는 방향이 한국과 미국/스웨덴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먼저 서구에서 금융이후 남성실업의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젠더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Chmalzbauer, 2011; Berik & Kongar, 2013), 2008년 금융위기에 따라 남성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서구에서도 남성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아내)이 오히려 남성(남편)의 가장으로서 정체성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한국에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남성실업 증가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조순경, 1998; 1999; 2000). 결국 한국남성은 2010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성보다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에서 수입갈등에 대한 성별인식이 미국/스웨덴과 다른 구조를 갖게 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혼인에 따른 집단차이

여성노동을 둘러싼 고정관념적 인식에서 혼인은 한국에서만 중요한 변수일 뿐 스웨덴이나 미국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여성노동에 대한 모든 차원에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강하게 지지되었다. 반면, 스웨덴과 미국은 모든 차원에서 혼인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에서만 기혼이 미혼에 비해 보수적인 인식을 일관되게 보이는 것은 첫째, 연령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인 인식을 보이는데 기혼이 미혼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인식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통계청, 2014), 한국에서 여성의 만혼경향에 따라 기혼여성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1991년 25세, 2013년 여성:30.4세), 이는 기혼여성의 보수적 인식에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한국은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서구와 비교해 결혼제도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압력)이 높다. 관련연구에 따르면(은기수·이윤석, 2005; 은기수, 2006), 한국은 서구에 비해 결혼제도에 대한 인정정도가 훨씬 높고, 결혼을 통한 정상가족(이성애 부부, 남성부양자, 아이의 존재)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은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이나 일본보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더 강하다(은기수, 2006). 결혼으로부터의 제도적·사회적 압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지만, 유교적 가족주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Sung & Pascall, 2014), 제도로서의 결혼의 압력이 느슨한 서구와 비교할 때(원숙연, 2013), 한국에서 나타나는 혼인에 따른 인식차이는 이해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압력은 기혼은 미혼보다 더 보수적인 인식을 유지하게 될 개연성이 높고 이는 서구와 다른 인식구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미혼보다는 기혼이 실제 경험을 통해 결혼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일자리 남성우선의 경우, 한국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참여는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기혼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을 스스로 경험했거나 양육에 따른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면서 잠재적 퇴출자로 생각할 수 있다. 기혼남성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혼의 현실적 경험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거리가 이는 미혼에 비해, 노동시장에

서 일자리가 남성 우선 배정에 대해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인식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우리보다 적극적인 선진국과는 다른 인식구조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3) 연령에 따른 집단차이

한국과 스웨덴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모든 차원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차이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미국은 일부에서만 그 차이가 지지됨으로써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와 인식 차원에 따라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 미국, 스웨덴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의 인식을 고수하려고 하고 인식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경직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그런데 연령에 따른 집단차이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먼저 한국과 스웨덴이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한국의 연령별 인식구조는 스웨덴 보다 더 복잡하다. Turkey를 적용한 사후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대학교육의 중요성에서만 두 집단(a b)으로 나뉘고 나머지 차원은 모두 세 집단(a, b, c)으로 구분된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집단차이가 지지된 경우 그 집단은 두 집단(a b)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령(세대)에 따른 인식구조가 스웨덴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연령집단에 따라 인식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유되지 않고 세대에 따른 인식의 긴장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은기수, 2006).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사회적 가치관을 둘러싼 세대 간 차이가 큰 대표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상기하게 한다(Inglehart, 1997).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스웨덴의 연령별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세 나라 모두 20~50대/60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다른 차원은 연령집단이 세 집단으로 구분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한국에서 교육이 갖는 사회적 효용과 여학생의 높은 대학진학률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남녀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으로 수렴하고 있음이 재확인된다.

4) 자녀수에 따른 집단차이

한국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모든 차원에서 자녀수에 따른 집단차이가 확인되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을 보인다. 그에 반해 스웨덴은 수입갈등에서만 자녀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확인됨으로써 한국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대학교육의 중요성, 남성일자리 우선, 수입갈등에서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한국과 스웨덴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부구조는 연령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데 한국은 모든 차원에서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세 집단(a, b, c)으로 구분됨으로써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 미국이나 스웨덴과 다르다.

자녀수에 따른 인식차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스웨덴의 결과이다. 스웨덴은 수입갈등을 제외하고는 자녀수에 따른 인식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비교되는 결과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스웨덴은 자녀양육이나 보살핌의 사회화가 가장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젠더레짐을 대표한다(O'Connor et al., 1999; Lohkamp-Himmighofen & Dienel, 2000; Esping-Andersen, 2009). 단순히 형식적인 정책내용이나 방향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보살핌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는 국가이다. 즉 자녀양육과 관련한 하드웨어인 정책방향과 소프트웨어인 이데올로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자녀 수'에 따른 인식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그에 반해 한국은 보살핌의 사회화를 둘러싼 정책의 형식적 내용은 진보하고 있지만, 보육은 가족(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자녀수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편차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살핌의 사회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수는 여성(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나 남편과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분담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우선의 경우, 보육의 사회화가 확보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자녀가 3이상인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3자녀 이상의 경우, 일자리 우선권이 남성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녀가 적거나 맞벌이가정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른 경험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육의 사회화정도가 스웨덴보다 낮은 미국에서도 설명력을 갖는다.

5) 노동지위에 따른 집단차이

노동지위에 따른 인식의 집단차이는 한국에서 특히 현저하다.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인식의 모든 차원에서 노동지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강하게 지지되었다. 반면 미국은 일자리 남성우선과 수입갈등에서만, 스웨덴은 대학교육의 중요성과 수입 갈등에서만 비교적 약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동지위에 대한 사후분석(post hoc)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노동지위에 따른 집단은 한국은 모두 세 집단(a, b, c)으로, 미국과 스웨덴은 두 집단(a, b)으로 구분되어 한국에서 인식의 세분화가 보인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에서는 정규직=자기고용/비정규직/실업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서 정규직과 자기고용은 형식은 다르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일정부분 확보된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고용은 되어 있지만 안정성 보장이 약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정규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집단으로(b 집단)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된 상태로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집단(c집단)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상대적 지위가 나뉘수록 여성노동에 대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노동지위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지위에 따른 인식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스웨덴의 노동시장 구조가 갖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스웨덴의 소위 비정규직(또는 파트타임)이 갖는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스웨덴의 비정규직은, 한국과는 달리, 노동조건이나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 노동시간이 짧거나 유연한 시간운용에 따른 근무양태나 임금에서 차이가 있지만, 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 또는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비정규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스웨덴에서 대부분 노동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집단차이가 있는 경우에도(대학교육중요성, 수입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질적 집단으로(a 집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V. 함의 및 연구의 한계

대부분의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은 정책(제도)으로 표상되는 하드웨어와 사회구성원의 인식인 소프트웨어의 결합체이다. 따라서 행정학 연구에서 여성노동을 둘러싼 정책개입(예: 여성노동정책, 일-가족 양립정책/제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을 다른 나라의 인식과 비교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교대상은 젠더-레짐논의를 기반으로, 가족지향적 레짐으로 분류되는 한국, 자유주의노동시장 레짐인 미국 그리고 여성친화적 평등레짐인 스웨덴으로 하였다. 이들 세 나라를 대상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다양한 변수에 따른 집단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몇 가지 함의가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한국, 미국, 스웨덴의 인식은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젠더레짐 유형화가 갖는 설명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특히, 미국과 스웨덴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이 여성노동과 관련한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정책내용은 사회적 인식의 반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조금 복잡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한국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에 일종의 모순이 존재한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자리 남성우선이 가장 보수적인데 수입갈등은 덜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자리 남성우선과 수입갈등이 다른 방향으로 구조화된 것은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수입갈등에 대한 인식이 덜 보수적인 것은 여성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분담을 기대하는 것인데, 책임분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배분에는 소극적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스웨덴은 이 두 차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또 하나 한국에서는 일자리 남성우선이 가장 보수적인데 반해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가장 덜 보수적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배분에 중요한 인적자원의 구성요소인 대학교육은 남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 일자리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배정해야 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의 일을 둘러싼 보수적이면서 모순적인 인식이 공존하는 것은 정책의 형식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남녀평등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은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회의적

시각도 공존하다. 이는 정책내용과 현실간의 간극 즉 형식주의로 논의된다.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형식주의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된다. 실증연구가 보여주듯, 한국은 미국과 스웨덴에 비해 여성노동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이 존재하다. 모든 차원에서 여성노동에 대하여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적 인식을 보였다. 더욱이 본 연구의 심사자께서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결과는 '여성의 일'에 대한 다양한(때로는 모순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 그리고 남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의 보수성과 다양성은 일-가족 양립정책의 형식적 선진성과 실제 집행간의 간극, 즉 형식주의의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형식은 서구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고 평가되는 육아휴직을 공공부문의 경우, 2013년 현재 휴가 대상자의 12%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남성은 4%만을 차지한다(안전행정부, 2013; 성인지통계, 2014). 사기업 부문의 경우는 0.18%에 불과한 실정이다(엄규숙, 2000; 김태홍·고인아, 2001). 무엇보다 육아휴직 활용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다. 공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육아휴직이 승진(63.6%: 매우 부정적 18.4%, 부정적 45.2%), 보직배치(49.2%: 매우 부정적 8.9%, 부정적, 40.3%), 및 고과평가 (62.5%: 매우 부정적 영향 11.7%, 부정적 50.8%)에도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문미경 외, 2014; 성인지통계, 2014).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부터의 요구가 적은 '남성우선'의 영역이라는 보수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출산 및 육아 등 사적 영역으로부터의 요구를 담아내는 휴가제도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어도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데 심리적·문화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여전히 노동시장을 남성우선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과 여성의 생계부양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인식의 모순은 기혼의 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소위 '엄마벌칙'(mommy penalty)이 그 예이다(Miller, 2011).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 출산이나 육아 등이 개입되는 것이 부정적이지만 기혼의 취업여성은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높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업무몰입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고과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개연성을 높인다. 즉 엄마벌칙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일-가족 양립정책이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도 실제로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정책의 형식주의를 야기한다.

또 하나, 여성이 정치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적 인식이 여전

히 높은 상황에서 여성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와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공천할당과 관련한 제도적 개입이 시도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 47조). 지역구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공직선거법 제 47조 4항), 2012년 제19대 국회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은 7%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비례대표의 경우, 2004년 이후 후보자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제19대 국회 비례대표의원 중 여성비율이 5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16%에 그치고 있다. 이는 130개 국가 중 90위²⁾에 속하는 것으로 보수적 인식의 현실적 반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가 정책의 형식주의에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한국의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은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보수적일뿐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스웨덴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에 성별을 제외한 다른 변수는 그 차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집단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 인식공유가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은 성별은 물론 모든 변수에서 집단차이가 강하고, 집단도 세분화되어 있다. 집단 간 인식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다. 인식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인식과 새로운 인식이 과도기적으로 공존하고 있고, 때로는 상호 갈등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원숙연, 2013; 2014). 이처럼 다양한 인식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책내용과 인식 사이의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으로부터 차용해온 선진적인 정책내용이 어떤 집단의 인식과는 부합하지만 다른 집단의 인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 존재하는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교적 선진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여성노동 관련 정책(특히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식주의의 하나의 이유로 지목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가 우리의 보수적인 인식에 정책내용을 맞추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식은 정책(제도)보다 경직적이고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적인 정책이 앞서서 인식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정책내용과 어느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는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문화와 맥락을 달리하는

2) 출처: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Parliaments(www.ipu.org)

선진국으로부터 단순히 정책형식만을 모방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통해 인식을 견인하되, 인식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행정학에서 여성노동과 관련한 정책(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인식(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정책만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작은 시도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국제비교이다.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 여성의 일을 둘러싼 고정관념적 인식의 국제비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의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 의의이면서 동시에 연구의 한계이다.³⁾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단위와 관련한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스웨덴의 국가(사회)라는 거시적 단위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구성원이 갖는 고정관념적 인식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분석단위에서 구조와 개인의 혼재를 '방법론적 집합주의'를 적용해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 형성되는 개별적 현상이기 보다는 특정사회의 구조나 문화 및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방법론적 집합주의와 연구목적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 대 구조'라는 사회과학연구의 오래된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을 본 연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인식이 구조의 산물이라는 방법론적 집합주의적 전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적(descriptive)이고 탐색적인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스웨덴에서 여성노동을 둘러싼 고정관념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 지형분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각 국가(레짐)의 특성이 개인의 인구통계적 배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한국, 미국, 스웨덴의 젠더레짐이 갖는 이데올로기적·문화적 특성을 비롯하여, 경제위기에 따른 고정관념 및 남성의 생계부양자 정체성의 강화, 결혼제도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 및 문화적 압력,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경험의 차이, 보살핌의 사회화 정도, 자녀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부담의 차이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정교한 의미의 인과관계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탐색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행정학분야에서 성-고정관념은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진 주제는 아니다. 더욱

3) 연구의 한계와 관련하여 심사자분의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 한국, 미국,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 또한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새로운 영역으로 기존의 논의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탐색적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관련 연구의 축적을 통해 성-고정관념적 인식의 구조 및 인식차이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도 엄정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는다.

셋째, 본 연구는 국제비교연구이다. 국제비교연구의 경우, 특히 자료의 가용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언어를 달리하는 복수국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일척도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 더욱이 세계가치조사처럼 이미 조사가 완료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측정도구의 구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측정도구의 구성, 선택 그리고 정련과정에 연구자의 의도나 판단이 개입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세계가치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30년 이상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척도로 일정한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미국, 스웨덴 모두를 포함하고 최대 2000명이 넘는 표본을 가진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이다. 따라서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계는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사현·홍경준. 2014. “출산을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213-238.
- 김영선·천혜정·최석호. 2013. “일-가족 균형정책, 제도와 현실의 격차.” 《담론201》. 16(1): 115-135.
- 김용학. 2003.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송다영. 2012. “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가족과 문화》. 24(3): 1-33.
- 원숙연. 2005.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2): 157-188.
- 원숙연·이동선. 2012.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 OECD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325-360.
-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가족과 문화》. 18(3): 1-31.

-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진숙. 2010. “복지레짐별 일-가족양립정책과 선택의 자유에 대한 논의.” 《한국가족복지학》. 30: 379-404.
- 조순경. 1998. “경제위기와 여성고용정치.” 《한국여성학》. 14(2): 5-33.
- _____. 1999.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상황변화.” 《산업노동연구》. 5(2): 123-147.
- _____. 2000.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차유경·원숙연. 201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학보》. 23(3): 303-327.
- 최성은·양재진. 2014. “OECD 국가의 여성 일-가정양립에 대한 성과: 자유주의 경로의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23(3): 273-301.
- 통계청. 1998.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2009.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2014.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여성연구원. 2014. 《성인지통계》.
- 한승준·박치성. 2011.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51-82.
- 홍미영. 2004. “여성공무원에 대한 ‘유리천장’ 현상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비교를 통한 시론적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329-363.
- Acker, J. 1992. “Sex Roles to Gendered Institutions.” *Contemporary Sociology* 21(5): 565-569.
- Berik, G., & Kongar, E. 2013. “Time Allocation of Married Mothers and Fathers in Hard Times: The 2007-09 US Recession.” *Feminist Economics* 19(3): 208-237.
- Bunnin, N., & Yu, J. 2004. *Methodological Collectivism*. The Blackwell Dictionary of Western Philosophy.
- Connell, R. 1987. *Gender and Power*. Oxford: Polity.
- Esping-Anderso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London: Blackwell.

- Giddens, A.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ram, H., Schneider, A., & DeLeon, P. 2007.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In P. A. Sabatier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 93-126), Boulder, CO: Westview Press.
- Johnston, D. D., & Swanson, D. H. 2006. "Constructing the "Good Mother": The Experience of Mothering Ideologies by Work Status." *Sex Roles* 54: 509-519.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Lewis, S. 2001. "Restructuring Workplace Cultures: the Ultimate Work-family Challenge?" *Women in Management Review* 16(1): 21-29.
- Lohkamp-Himmighofen, M., & Dienel, C. 2000. "Reconciliation Polic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L. Hantrais (ed). *Gendered Politics in Europe: Reconciling Employment and Family life* (pp. 49-67), London: Mcmillan Press.
- Miller, A. 2011. "The Effects of Motherhood Timing on Career Path."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4(3): 1071-1100.
- Mosesdottir, L. 1995. "The State and the Egalitarian, ecclesiastical and Liberal Regimes of Gender Rel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6(4): 623-642.
- O'Connor, J., Orloff, S., &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12.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 Parker, W. 2006.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vs. Methodological Holism: Neoclassicism, Institutionalism and Socioeconomic Theory."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Economic*

Psychology and th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al Economics. Paris, France: 1-15.

- Powell G., D. Butterfield, & J. Parent. 2002. "Gender and Managerial Stereotypes: Have the Time Changed?" *Journal of Management* 28(2): 177-193.
- Ragins, B., & E. Sundstrom. 1990. "Gender and Perceived Power in Manager-Subordinate Rela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273-287.
- Sainsbury, D. 1999. "Gender and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s." In D.Sainsbury (ed). *Gender and Welfare Regimes* (pp. 75-11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malzbauer, L. 2011, "Doing Gender," Ensuring Survival: Mexican Migration and Economic Crisis in the Rural Mountain West." *Rural Sociology* 76(4): 441-460.
- Sung, S. 2014. "Work-Family Balance Issues and Policies in Korea: Towards an Egalitarian Regime?." In Sung S and Pascall G (eds).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 Confucianism or Gender Equality?* (pp. 29-48), Palgrave Macmillan.
- Sung, S., & Pascall, G. 2014.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 Confucianism or Gender Equality?* Palgrave Macmillan.
- Won, S., & Pascall, G. 2003. "A Confucian War over Childcar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3): 270-289.